

전남연안 생물 다양성 세계최고 갯벌가치 年 6조 5000억원 달해

해수부 '해양생태계 조사' 결과



호미로 살짝 파헤치면 꼬막이며, 바지락이 무더기로 나오는 전라도 갯벌과 인근 바다의 생물 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갯벌의 42%를 차지하는 전남 갯벌의 한 해 경제적 가치가 6조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3면>

해양수산부가 15일 발표한 '해양생태계 기본조사'(2006~2013년)에 따르면 한국 연안에는 총 4874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영해 면적을 기준으로 1000km² 당 56종의 해양생물이 출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역별로는 전남을 포함한 남해에서 2523종의 생물종이 출현해 가장 많았고, 제주 2302종, 서해 2131종 순이었다.

앞서 2010년 80개국 2000여명의 해양생물학자들이 조사·발표한 '해양생물 센서스'에서도 한국 해역의 단위면적(1000km²) 당 해양생물 종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32종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바다는 사계절 변화가 뚜렷해 아열대와 한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이 출현했다. 또 대륙과 대양이 만나는 지점에

남해 2523종, 서해 2131종
대륙·대양 접점 사계절 뚜렷
갯벌 저서동물 168종 풍부

위치해 하천수, 한류, 난류 등이 만나는 해역의 특성상 더욱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보호대상 해양생물 서식처도 많아 고흥 일대 바다와 해안에서는 나팔고동, 남방방개 등이 발견됐다. 또 영광에서는 대추귀고동, 신안에서 장수삿갓조개와 유착나무돌산호, 여수에서 나팔고동, 선진기름불가사리 등의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살고 있었다. 전국적으로도 52종의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처가 확인됐다.

갯벌의 생물 다양성도 단연 돋보였었다. 한국 갯벌에는 총 1141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크기가 1mm 이상인 대형저서동물(갯벌 바닥 표면이나 표면 아래 서식하는 동물)은 총 717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갯벌 중 유일하게 세계유산으로 지



정된 유럽의 와덴해 갯벌에 서식하는 대형 저서동물(168종)의 약 4.3배에 해당한다.

전남 서부에서는 굴, 낙지, 칠게, 통통마디, 갯잔디 등이 서식했고 동부에서는 바지락, 굴, 기수조, 갈대 등이 서식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갯벌의 1km²당 연간 제공 가치는 약 63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산물 생산과 수질정화, 여가제공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를 국내 전체 갯벌 면적(2489.2km²)에 적용하면 한국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6조원에 이른다.

또 1037km²(전국의 42%)에 달하는 전남 갯벌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6조5532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를 안겨주고 있었다.

한편 전남의 바다 면적은 2만6000여 km²로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해안선은 6475km(전국의 46%), 섬은 2219개(전국의 66%)를 보유, 해양생물자원 및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이에 전남도는 최근 신안 다도해, 여수 여자만 등지의 갯벌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알림



4대악 없는 밝은 세상! 함께 만들자 신나는 학교!

8월 3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일보에 오는 8월31일 광주월드컵 경기장 특별무대에서 중고교 생들이 학업으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기와 재능을 맘껏 발산할 수 있는 '제2회 광주·전남 청소년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축제에는 청소년들의 밴드 댄스경연 4대악 체결 토론회, 수기 발표, UCC공모전 등 다양한 경연이 펼쳐지며 각 대학 인기 밴드 및 댄스팀의 특별공연이 있습니다.

이번축제는 4대악을 척결하고 청소년들이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교실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전국 대학의 입학홍보관도 운영돼 중고생들의 진로와 대학선택에도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과 학부모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8월 31일 (토요일) 오전10시~오후10시
- 장소: 광주월드컵경기장 특별무대
- 경연모집부문: 밴드(락/포크), 댄스(비보잉&팝핀/걸스합), 풍물, 4대악척결UCC공모전 (교사참여가능), 3on3길거리농구
- 참가자격: 중고교 재학생, 참가비 무료 (입장티켓입상자 소정의 상장 및 장학금수여)
- 참가문의: 062-220-0674
- 주최: 광주일보,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 후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 특전: 4대악 UCC공모전 우수자는 교육부 장관상·교육감 상장 시상

광주은행 지역환원 빨간불

광주은행 매각 방식이 당초 정부 방향인 '공개경쟁입찰'로 결정되면서 지역자본에 의한 인수가 어렵게 돼 민영화 표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새 행장 선임에 앞두고 '내부 승진자'가 아닌 '낙하산 인사'가 될 경우 민영화는 파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9면>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대우증권, 삼성증권,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발행 주식 총수의 56.9%를 전량 판다고 공고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공개입찰방식'을 명시해 그동안 광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계와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고려한 우선협상권을 배제했다.

그동안 지역 경제계와 국회의원들은 지역 자본에 대한 우선협상권 부여와 유연한 금산 분리 원칙 적용 등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만나 지역 자본(지역상공인연합회) 우선협상권 부여 조건을 반드시 포함

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최고가 낙찰' 원칙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또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할 경우 특히 시비가 일 수 있는 네다 정치적 입김 등의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정부가 지역 경제계·상공인·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발표해 사실상 지역자본 인수가 어렵게 됐다"며 "이달 안에 선임될 새 광주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까지 강행된다면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민영화 진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9월 23일까지 예비입찰 서류를 접수한 뒤 실사 등을 통해 11월까지 새 주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의 인수는 1조1000억원~1조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수전에는 JB금융(전북은행)과 중국공상은행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한금융

지역자본 우선 협상권 배제 최고가 낙찰 매각공고 행장 낙하산 인사때 지역사회 반발 민영화 차질 예상

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와 교보생명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 원서접수: 8월 5일(월) - 16일(금)

입학 문의: 대학원 062)605-1115 / 학부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타고난 듯 눈부신 조명피부, 이제 당신 거예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제닉 이펙터

모든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타고난 것처럼 빛나는 피부~ 피부 속부터 밝아진 기쁨 수 있도록 피부와 동화되는 Cell-Bio™ 포뮬라가 조명인자를 폭발적으로 키워주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제닉 이펙터~ 타고난 듯 눈부신 조명피부, 이제 당신 거예요

*Cell-Bio™ 피부 동화 포뮬라
피부와 동화되어 보다 폭발적인 효과를 약속하는 헤라만의 앞선 피부과학입니다

NEW
이펙터 등성
주름개선기능성
사용의여유로안정

HERA
WHITE PROGRAM
BIOGENIC EFFECTOR
WHITENING REVITALIZING RADIANCE

www.hera.co.kr